

병원동 리모델링 기념시설물 조성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

할매천사 마리안느·마가렛에 명예 고훈군민증 수여

개원 100주년을 맞은 국립소록도병원에서는 16일 기념시설물 제막식과 명예군민증 수여, 정책간담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소록도병원은 병원 입구에 남겨진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 100주년 기념 시설물을 조성하고 이날 일간에 공개했다. 이 시설물은 과거 병원동 건물로 활용됐던 곳으로 지상 1층 건물의 지붕을 철거하고 중정과 전시실을 마련해 관람과 휴식 장소로 리모델링했다. 소록도병원은 이곳을 소록도 방문객들을 위한 관람과 휴식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고훈군은 이날 고훈문화회관에서 소록도 한센인들의 천사로 불리는 마리안느·마가렛 수녀와 병원 약무사로 활동했던 원불교 김혜심 교무에게 명예군민

증을 수여했다. 고훈군은 한센인들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이들에게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해 한정 제작한 기념우표증정패도 함께 전달했다. 또 2012년 고훈명예군민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설영홍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에게도 기념우표증정패를 수여했다. 설 전 부회장은 대만 국립성공회대 1학년 때인 1963년 전 세계 대학생 200여 명과 함께 오마간적사업과 소록도 봉사 활동을 했던 공로로 증정패를 받았다.

한국한센총연합회도 황주홍(고훈·보성·장흥·강진)국회의원과 함께 이날 ‘소록도, 고통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했다. 황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

서는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부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채규태 교수,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조준 교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립소록도병원 개선행향과 해방 후 한센인에 대한 감금, 폭력, 낙태 등 국가의 인권침해 현실을 돌아보고 한센인에 대한 국가배상 및 법적·사회복지적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국립소록도병원은 개원 100주년을 맞아 16일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 시설물 제막식을 열었으며, 오는 17일에는 100주년 기념식·제13회 한센인의 날 행사와 한센병 박물관 개관식 및 KBS열린음악회, 18일에는 소록도병원 자원봉사자의 날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고훈=주각중기자 gju@

/이중행기자 galee@kwangju.co.kr



16일 고훈 소록도병원에서는 개원 100주년을 기념해 조성한 기념시설물이 공개됐다. 이 시설물은 과거 병원동 건물로 활용됐던 곳으로 지상 1층 건물의 지붕을 철거하고 중정과 전시실을 마련해 방문객들의 관람과 휴식 장소로 리모델링했다. /연합뉴스

윤장현 시장 “공무원 위계질서·시스템 무너져선 안돼”

태양광 발전 선정 과정 정보 유출 확대간부회의서 ‘작심발언’

윤장현 광주시장이 논란이 인 윤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번 건을 계기로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시장 등의 문제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윤 시장은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의 출발과 끝은 시민이고, 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며 “그 중심에 간부 등 공직자가 있고, 위계질서와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부와의 소통, 정책 결정 등을 하는 과정에 이 기본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위계질서가 무너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 윤 시장은 이 언급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근 감사위원회 자문회의 결과 등 민감한 행정정보가 외부 유출된 데다 항명 논란 등에 따른 ‘군 기습기상’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윤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선정에 방점을 뒀으나 이 같은 결정이 갖은 이유로 걸돌고 시정 난맥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윤 시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 선정 논란으로 현안질문에 나선 시의원과 한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이를 반영하듯 평소와 달리 환경생

태국장과 감사위원장의 현안보고 뒤 실국 보고가 이어졌다.

윤 시장은 과거 광주시가 암수색과 공직자 사법처리 등 각종 불명예가 이어져 고개를 들 수 없었으며 “정직, 투명, 신뢰의 민낯 행정을 강조했는데 다른 시각으로 본말이 오도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성문옥 감사위원장은 윤 시장의 언급에 앞서 “내부 자료가 여전히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며 보안의식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의 방침이 결정되면 그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함에도, 개인 의견으로 일을 하는 것은 위계질서를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시장의 발언에 힘을 보탤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주목! 20대 국회 광주·전남 새얼굴

국민의당 윤영일(해남·완도·진도)

“농어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 개발 지역 현안사업 조기 추진에 최선”

20대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의당 윤영일 당선인(58·해남·완도·진도)은 애초 어려울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3선을 노리던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에 무난하게 승리했다. 윤 당선인은 해남에서 태어나 화산중학교까지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 마포고를 졸업한 뒤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전남도 수습행정관을 거쳐 감사원에서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했다. 감사원 비서실장과 UN감사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국장, 감사원 사회문화국장과 재정경제 국장, 감사교육원장, 한국감사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선거전 초반 인지도가 낮아 고전했으나 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하고 국민의당 바람이 불면서 역전할 수 있었다.

-선거 후 어떻게 지냈나.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 당과 국회 사무처에서 주최하는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하고 등원 교육을 받고 있다. 또 최근 당 제4정조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정책간담회에 참석, 정책과 현안과제를 논의하며 보내고 있다. 틈나는 대로 3개 군 지역 행사에 참석, 지역구민께 당선인사를 하고 지역 애로사항 등을 듣고 있다.

-정책 입문 계기나 배경은.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누구보다도 농촌 실정을 잘 알고 30여년 이상의 풍부한 국정경험도 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저성장·소득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고환 농어촌지역을 위해 일해 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다양한 행정 경험과 두터운 인맥으로



산자·국토·농해수위 희망

낙후된 지역발전위해 봉사

낙후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마지막 봉사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헌신할 각오가 강했기에 정치를 통해 바꾸고 싶었다.

-초선으로는 이례적으로 제4정조 위원장(산자·국토·농해수위) 역할을 맡았다. 각오는.

▲농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농어촌

정책을 개발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공정성장법 같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제출하고 지역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희망하는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대적 책무를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총선에서 강하게 본 국민의당 바람의 요체는 뭐라고 생각하나.

▲변화를 바라는 국민 요구가 표출된 것이다. 구태정치, 정치인을 위한 정치, 민생을 외면한 구조정치에 국민은 실망감을 느꼈다. 정부여당과 더민주에 대한 국민의 위대한 심판, 정치개혁과 변화에 대한 지역구민의 열화같은 성원이 원동력이라고 본다.

-3당 체제하에서 국민의당이 나갈 길은.

▲국민의당은 야당 정체성을 기본으로 한 호남 기반 정당인데, 총선 승리 이후에 연립정부론을 들고 나왔으나, 아직 당내의 연정에 대한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본다. 호남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국민의당 손을 들어준 것은 더민주와 문재인 전 대표로는 정권교체가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선택을 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한 야당의 정체성을 지닌 정당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 공기질 180국 중 173위 ‘미세먼지 공포’

美 예일대 ‘환경성과지수’

불철 불침객처럼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기질(Air Quality) 수준이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권인 173위로 조사됐다. 공기질, 기후와 에너지, 산림자원 등 전반적인 환경성과지수 역시 갈수록 후퇴하면서 중하위권으로 평가됐다.

16일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

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을 받았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3위의 부끄러운 성적이다. EPI는 환경, 기후변화, 보건, 농업, 어업, 해양분야 등 20여개 항목을 활용해 국가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2년 마다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공표된다.

우리나라는 공기질의 세부 조사항목 중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에서는 33.46점으로 174위에 위치했다. 중국이 2.26점 차이로 173위에 위치했다. ‘이산화질소에 노출되는 정도’는 ‘0점’으로 벨기에 및 네

덜란드와 함께 공동 꼴찌였다.

이는 연구진이 설정한 기준연도인 1997년 대비 공기 중 이산화질소 농도 감소 노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실제 기준연도인 1997년 우리나라 공기 중 이산화질소 농도는 7.92ppb였고 평가연도인 2011년에는 6.64ppb로 1.28ppb 감소하는데 그쳤다.

환경위험 노출도를 나타내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103위(65.93점), ‘기후와 에너지’는 83위(62.39점)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경 축하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오픈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연락처 : (062) 720-2872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 방지에는 스틸 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불이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가지 않는 물새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고민 단열방수 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샐틈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차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 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1599-7652

광주·전남지사 NAVER [연합건설] 검색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편